

## 제2차 정기총회 개최



협회는 지난 3월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내외빈 및 많은 회원사의 참석으로 제2차 정기총회를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총회는 최대웅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준일 부회장의 년혁보고에 이어, 지철근 고문(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그동안 협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정성우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제2대회장에 수석부회장이신(주)국제아스트라 김광배 대표이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임기만료된 전태자 감사는 연임되었습니다.

축사에서 지철근 고문은 원적외선업계가 사단법인 협회를 주축으로 힘을 합하여 발전을 한 후에는 기능별로 자연스럽게 분리될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신임 김광배 회장은 정성우 전임회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를 통하여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함과 동시에, 금년도 중점사업을 아래와 같이 피력하였으며 부의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① 협회지 2호 발간완료, 앞으로 분기보로 계속발간
- ② 세미나 개최후원: 5월중 한일원적외선 심포지움
- ③ 협회 회원마크 발행제도 활성화
- ④ 복사율 측정 시험기관과의 협약추진
- ⑤ 분열된 원적외선 단체의 통합

## 협회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4월9일 협회사무실에서 제1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 김광배 회장의 앞으로 운영계획과 협회활성화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는바,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회원사 배기운동

년말까지 100개 회원사를 목표로 금년 말까지 입회비를 면제하고, 회원사 의뢰시 동판을 제조하여 교부하고 임원1인이 5개회원사를 신규유치하기로 의결

### ② 부회장 선임

현재 부회장이 서울1명(김준일 부회장)뿐이므로 전국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영남에서 1명, 호남에서 1명씩 추가선임하여 부회장단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껴 조기정이사(광주), 강무웅이사(부산)를 부회장으로 선임의결.

### ③ 협회지 3호 발간

5월16일경 2,000부 발간 임원진 광고협찬의결. 원적외선 관련 모든 분들에게 무료 우편발송계획

### ④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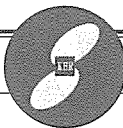
협회임원, 고문, 자문위원, 원로, 중소기업청 담당자 참석으로 원적외선 분야의 발전 및 협회활성화를 위한 자문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결정

### ⑤ 국제 고문추대

### ⑥ 품질인증제도의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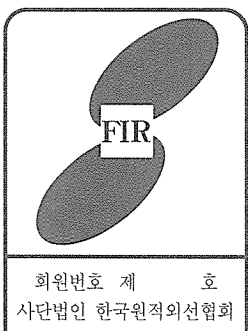
### ⑦ 협회안내 및 기입을 위한 광고

5월호 월간세리믹스지에 협회기입을 위한 안내광고 게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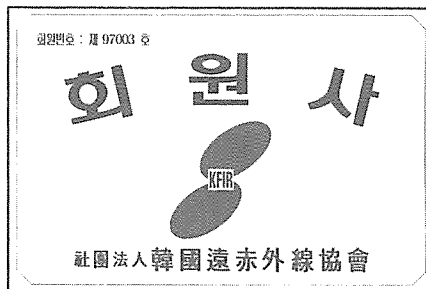


## 협회가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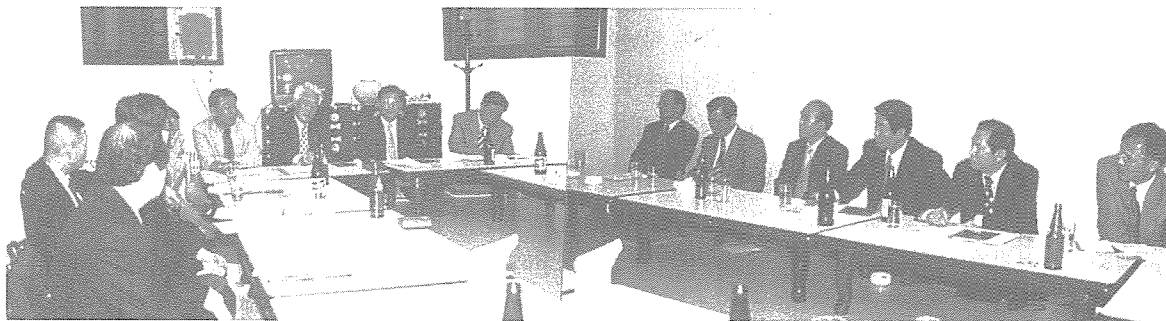
- 자격 : 원적외선과 관련 모든분
- 입회서류 : 입회신청서 (협회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제품카달로그  
※시험성적서
- 입회비 : 금년말까지 면제
- 연회비 : 월 25,000원
- 회원증발급
- 회원마크 사용



- 회원사의뢰시 현관부착 동판제조교부



- 친목유대강화 : 신년교례회, 정기총회
- 협회보수령 : 업계소식, 정보수집,  
신기술획득
- 세미나 심포지움개최 후원
- 애로사항 대변 : 대정부건의,  
소비자단체 접촉
- 시험 측정시 할인혜택 :  
측정기관 협약 교섭중



##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4월22일 협회 임원, 고문,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원적외선 발전 및 협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을 갖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였습니다. 참석자 대부분 원적외선 업계가 사단법인 협회로 힘을 합하여 나가야 하며 하루빨리 원적외선을 정부가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집약을 보았습니다.

## 참석자

- 고 문 : 지철근(한국조명전기 설비학회),  
전병식(제철화학 감사), 이종민(가야대 교수),  
최명규(법률고문, 변호사)
- 자문위원 : 김유성(포항공대 교수), 백우현(경상대교수),  
양중식(경희대교수), 김중만(원광대교수),  
한충수(충북대교수)
- 협 회 : 김광배 회장, 김준일 부회장, 조기정부회장,  
이희한 전무이사, 김형문이사, 한정수이사,  
김완겸이사, 최대웅 사무국장,  
박종욱박사(요업기술원),  
심철민부장, 김지영기자(월간세라믹스)